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열왕기상 17:10-16 제2독서 히브리서 9:24-28 복음 마르코 12:38-44

말씀 < 미얀마에서 온 편지 >

여기 소개하는 편지에는 제1독서에서 사렙타의 과부가 엘리야 예언자에게 내어 놓았던 한 줌의 밀가루(1열왕 17, 10-16). 복음인 렘톤 두냐(복음 마르 12, 38-44)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단 한 번 자신을 제물로 바친 그리스도(히브 9, 24-28)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내온 이야기입니다.

+찬미예수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김영식 신부님께 몇 달 만에 찾아오신 000님과 오랜만에 나누었던 미얀마의 근황을 말씀드립니다.

1. 그동안 000님이 하신 일

00와 인근지역은 코로나에다 시가전이 겹쳐서 곱으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간 000님은 00에서 조달한 성금 약4,600만짜(4,000만원)를 가지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감시의 눈초리가 심해서 늘 문제는 00에 선 돈을 00으로부터 00까지 들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2.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껏 000님과 협력자들은 밀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식량과 생필품 의약 등을 필요할 때마다 대주었는데 이런 방식의 한계를 절감하고 사람들이 자립하도록 돕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소규모 자본을 투자해서 사람들이 작은 일(장사, 농업, 목축 따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돕고, 지원을 받은 사람들을

모듬으로 조직해서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는 개입하는 방식으로 빈민 및 ODM(시민불복종운동)으로 난관에 처한 이들을 돕는 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이 생긴 셈입니다.

3. 미얀마의 고난의 행군

미얀마 곳곳에서 사제단이 보낸 성금이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것을 보며 000님도 저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얀마 백성은 한때 북한이 겪었던 고난의 행군 비슷한 시기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끝이 안 보이는 길이지만 결국 머나먼 고난의 길을 돌파해내리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4. 사제단과 미얀마 수도자들의 연대

정부가 백신접종에 무관심하므로 각자도생해야 하는데 최근 지역 수도자들에게 교구 사제들과 함께 백신을 맞게 해주는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000님께 백신은 사제단 성금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니 그래도 되나며 뭘 뜻이 기뻐하셨습니다.

5. 코로나와 군대

000님께 '코로나'와 '군대' 두 재앙 중 뭐가 더 힘들 시냐고 여쭙보니 당연히 후자라고 하시네요. 코로나는 현재의 재앙일 뿐이지만 군부의 쿠데타는 젊은이들과 민중의 미래를 몽땅 집어삼키고 있으니 그 심각성은 비교조차 없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뭐라도 해야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도무지 없습니다. 그나마 사제단이 보내주는 성금을 000님께 전달해 드리는 다리역할을 큰 위안으로 삼을 뿐입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1월9일(화)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저녁7시30분	주일헌금	\$ 1,128.00
			교무금	\$ 2,850.00
11월10일(수)	성 대 레오 교황 학자 기념일	오전7시30분	성물방	\$ 89.00
			감사헌금	\$ 0.00
11월11일(목)	투르의 성 마르티노 주교 기념일	저녁7시30분	자선비	\$ 235.00
			성소후원	\$ 265.00
11월12일(금)	성 요사팍 주교 순교자 기념일	저녁7시30분	도네이션	\$ 2,000.00
			가타수입	\$ 20.00
11월13일(토)	성녀 프란치스카 하비에르 카브리니 동정 기념일	저녁7시30분	합 계	\$ 6,587.00
11월14일(일)	연중 제33주일	오전9시(학생) 오전11시(교중)	미사참례자	학생/아동: 13명 성인: 136명
교무금 봉헌자	김선식, 신영후, 백정심, 박용호(11-12)이상인(10-12)김귀태(9-12)김상범(7-12)윤영자, 안기창(10-11) 최재진(9-10)김주동(10)김영숙, 윤재경, 이재덕, 조영숙(11)			

◎신앙생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 욥시21:5)

가톨릭교리상식

◎우리 집 애완동물이 세례를 받게 하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동물은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교회법 864조 1항). 애완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께는 섭섭하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세례를 받는 이유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교회법 849조).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엄밀히 말해, 사람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란 진리와 이성과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849항). 자유의지 없이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이는 동물의 행동을 교회가 말하는 죄의 범주로 재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애완동물이 이유 없이 주인을 향해 짖거나 이웃 주인을 깨물었다고 해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의미의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못 받는다는 가르침이 동물들은 하느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세례는 받을 수 없지만,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동기 신부가 애완동물 축복식을 하겠다고 주보에 썼더니, 수많은 종류의 진귀한 애완동물들이 성전에 속속 모여들어 장관을 이뤘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 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온갖 동물과 더불어 하느님께 기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을 사면, 신부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전셋집이나 월셋집도 축복 받나요?

교회에는 성체성사를 비롯한 일곱 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준성사도 있습니다. 성사와 달리 준성사는 청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영적 효력에 차이가 납니다(전례헌장 60항 참조). 축복은 준성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축복으로 받는 은총도

축복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본당에서 교우분이 새신부님께 차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본당 정문도 통과하지 못하고 화단을 들이받아 사고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새신부님의 효형(?)이 형편없다고 수군거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축복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신심에 도움이 되는 물건뿐만 아니라, 새로운 건물과 사물에도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표징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온갖 사건들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축복을 청하여 받는 것입니다(축복예식서 453항 참조). 그리하여 새로운 사물이나 건물을 얻은 것도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이라 여기며 감사드리고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축복예식서 454항 참조). 중요한 것은 집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우리와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현행 예식서는 새 집 축복 예식에 입주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새 집 축복식을 거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축복예식서 477항). 그러므로 전셋집, 월셋집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아무리 대궐같은 기와집을 얻었다고 해도, ‘왜 이것 밖에 안 주시나요!’ 하는 마음으로 축복식에 참석한다면, 남들이 그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집에 살면서도 하느님께 깊이 감사하며 축복식에 참석하는 사람이 받을 은총에 어찌 비하겠습니까.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김정필.라파엘/윤태욱.안나/원정은.카타리나 백정심.막달레나/기은희.마리아/김나미.로사 김옥륜.세실리아/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 김숙자.수산나/김초지.마리아/이규청.제노비아 엄모니카/배미성.오틀리아/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뎃다/신용경.그레고리오/이상일.마리아 남필레.마리아/김화진.요안나/김영미.마리아
-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여길선요안나 영혼	김근수요한가족	생	조유원요셉 영육건강	조유희밀지다
연	전기레베레나 영혼	조영진안드레아	생	조유원요셉 영육건강	이선자안나
연	오영애바울라 영혼	오토마스자녀들	생	김정필라파엘 빠른 회복	한복자빅토리아
연	이돈수알퐁소 영혼	이주엽발렌티노	생	조던강, 류현주보나 빠른 회복	류재순마리안나
연	서정선엘리사벳 영혼	안윤석	생	류효숙, 류재순마리안나 영육건강	고위석바로로 고공자벨라뎃다
연	정윤옥 영혼	류재순마리안나	생	진도니 빠른 회복	
연	한오임소피아.정황자세실리아 손데레사 영혼	이나숙데레사	생	김정필라파엘 빠른 회복	
연	이돈수알퐁소 영혼	고바로,벨라뎃다	연	김영미마리아 영혼	진엘리사
연	모든 연령	연령회	연	조상님들 영혼	이종만모세가정

◎공동체 소식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묵시21:5)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1인 1신심단체, +1봉사단체 가입하기>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1. 성모신심미사 및 성시간

일시: 11월 13일(토) 오전 10시 30분. 성당
(일반 신자분들도 미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사후 성당에서 요셉회.안나회가 있으며
점심나눔은 영동설령당에서 합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리노 공소 미사

일 시: 11월 14일(일)성당에서 오후 2시 출발
참여단체: 하상바오로, 전교부
공소미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3. 서북미 한인 꼬미시움 회합

일시: 21일(일)교중미사후.친교실
대상: 서북미 6개 꾸리아 간부 및 우리 본당
각 브레시디움 4간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도네이션)

미사예물: 본당신부님(\$1,450)
방석/카펫교체: 김귀태.안셀모(\$1,000)
익명(\$1,000), 익명(\$1,000)

<<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학생미사 (매주일 오전 9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학생미사때 좌석을 구분하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학생.학부모(독서대쪽)/일반성인(미사해설대쪽)

◎ 병자성사 및 봉성체 신청

병자성사가 필요한 위급한 환자나 봉성체를 원하시는 환자 가정에서는 신부님께 개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성당 내에서의 소규모 단체모임 허용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본당 제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단체모임(10명 내외)에 한해서 본당 사용을 허락합니다.
본당 신부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에서 발행한 Check는 빠른 시일 안에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된 Check를 입금하지 않고 8개월이 지나면 찾을 수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Check는 본당 자선비로 봉헌 처리하려고 합니다.

● 코비드19 관련, 본당 방역 지침 (요약)

- ① 성가책과 기도책은 모두 개인이 지참.사용하시기 바라며, 미사후에는 개인소지품은 맥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② 악수/포옹 등의 신체적 접촉은 삼가하시고, 코비드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세정제 사용을 생활화 합니다.
- ③ 미사 참석하는 모든 신자들의 성가제창 및 기도문 봉독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합니다
- ④ 그 외 사항은 교구지침을 따릅니다.

화답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전례봉사	연중 제32주일(11월7일)	연중 제33주일(11월14일)	그리스도왕대축일(11월21일)	대림 제1주일(11월28일)
미사해설	김은영.폴리나	정미정.루시아	이순자.요안나	최금주.요안나
복사	김규철.레오	송돈희.요셉	장현철.엘리아	최진호.다니엘
헌금위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광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묵시 21:5

주보제작: 박봉준 . 프란치스코살레시오(909-573-5322) E-Mail : 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 (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

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 (바오로)
916-361-2020 (Bradshaw)
916-361-0433 (Elk Grove)

1.2.3 Auto Body 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 (호영베드로)
916-366-0123

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



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 (올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 (스테파노)
김옥기 (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서은미 부동산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 (안나) 916-600-1936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 #P)
최병엽 (바오로)
916-363-2345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 (클라라)
916-342-7072

메리서 부동산·용자·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 (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Print N Signs

Signs/Banners/T-Shirt
Wrap/Windows Tint
Soheil Samiee
916-844-0280/914-3794
PrintsNsigns16@gmail.com
9336 La Riviera Dr. #B

장 의사 W.F.Gormley & 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Aeyon Lee RPh
(이애연 플로렌시아)
개인면담 (사전예약필요)
교중미사후 친교실 (격주)
916-276-1834
aeyon7511@gmail.com

성당
FM주파수
107.9
(야외미사)

성당제출용
CHECK 발행할 때
Payee to:
St.J.H.C

교무금 봉헌 은행계좌 안내

입금은행: Wells Fargo
예금주: Pastor of St Jeong-Hae Elizabeth
계좌번호(Account#): 360 184 1897
교무금 등 각종 봉헌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모든 신자의 의무사항입니다.